Korean J Relig Educ
Vol. 67, pp. 21-45, December 2021
https://doi.org/10.58601/kjre.2021.12.30.02

종교교육학연구
pISSN 1229-6627
eISSN 2672-1767

A Bird's Eye View on Theology of Toilet*

Wonyoung Sohn
Seoul Christian University

Abstract

Feces symbolizes dirtiness and disgust. Hence the reason why people use expressions related to 'feces' when they criticize other people. Furthermore, 'feces' is often regarded as an evil object which must be removed for its link to numerous infections and diseases such as cholera. This article, based on such perception, explores the biblical usage of feces and aims to reflect theological meaning of 'dung' or 'toilet.' Firs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1) feces in biblical context has two meanings. First meaning could be discovered from the tradition of priests' law of purification which paints feces as a negative object. Such definition was strengthened later in the Qumran community. Second, however, Jesus did not entirely deny the Jewish purification law on the surface, but reinterpreted feces to overcome the tradition of Judaism and provide greater value in the context of 'Kingdom of God.' As shown in the analogy of "fruitless fig tree"(Lk13:6-9), it is greatly unique how feces is repainted as 'manuer' for 'Kingdom of God.' Next, this article (2) introduces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ology of toilet as a theological reflection of feces and toilet culture. First, in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theology, feces should be understood as God's creation rather than a mere negative figure. Therefore, salvation of feces is necessary. Second, in perspective of conversational theology, feces requires varieties of communicative research. However, studies on feces hardly been done in theological academia.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theology of toilet, active interactions and conversations regarding literature, psychology, and life science of feces are required. Third, feces could be utilized as a criticism for modern civilization and church under capitalism in the perspective of critical theology. Fourth, in the perspective of sacramental spirituality, feces is viewed as an object of disgust, but could also be understood as sacramental existence like "heaven inside dung."

Key words : Feces, theology of toilet, kingdom of God, kopria, ecology, sacramental spiritual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CRC: NRF-2015R1A5A7037825.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28, 2021

Author: Wonyoung Sohn,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sohnwo@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뒷간신학의 조감도*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교수

요 약

똥은 더러움과 혐오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똥'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공격한다. 심지어 똥은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세균과 질병의 원인으로서 제거되어야 할 악으로까지 타자화된다. 똥에 대한 이런 보편적 인식 위에서 본 논문은 똥과 관련한 성서적 용례를 탐색하고, '뒷간신학의 조감도'란 이름으로 똥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1) 똥의 성서적 의미로서 두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똥은 제사장의 정결법의 전통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것은 차후에 쿰란공동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예수는 표면적으로는 히브리 성서의 정결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더 큰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의 맥락에서 똥을 재해석하여 유대의 전통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눅13:6-9)의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름'(κόπρια)이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매우 독특하였다. 다음으로 (2) 똥과 화장실 문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서 뒷간신학은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똥은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부정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똥의 구원이 필요하다. 둘째, 대화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똥에 대한 다양한 대화적 연구가 요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학의 분야에서 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뒷간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똥과 관련한 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똥은 비판신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문명 및 현대의 교회 비판의 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똥의 이중성(더러움과 거름)은 그 비판의 토대가 된다. 넷째, 성례전적 영성학이란 측면에서 볼 때 똥은 비록 더러운 혐오의 대상이지만, '똥 속의 하늘'처럼 성례전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 똥, 뒷간신학, 정결법, 화장실, 하나님의 나라, 거름, 생태신학, 성례전적 영성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RC: NRF-2015R1A5A7037825.

Ⅰ. 서 론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화장실은 똥 누는 공간을 뜻하는 뒷간, 측간, 통시, 북수간, 잿간, 측청, 혼측, 회치장 등 다양하게 불렀다. 이 중에서 '뒷간'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강점기 때 '변소'(便所)로 불리다가 서양식 양변기가 들어오면서 씻는 곳과 싸는 곳이 물을 매개로 한 공간에 있어 '화장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특히 일제 총독부는 "생활개선에 관한 선언"(1920)을 통해 전통적인 재래식 뒷간을 소위 변소로 개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요강의 폐지를 권하였다(강준만, 2006: 91). 이처럼 화장실이 씻는 곳과 싸는 곳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면, 뒷간과 변소는 배변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다(이화영, 2009: 8-10). 무엇보다 '뒷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재래식 화장실을 일컫는 용어로서 몸의 '뒤'(똥 누는 행위에 대한 완곡한 표현)와 '간'(공간)이 합해진 말이다. 재래식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푸세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역과 생활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 사실 고대의 노천 배변이 현대의 화장실이 되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김성원이 화장실의 발달사에서 잘 정리하였듯이, 화장실은 노천 배변--> 임시 구덩이 화장실--> 고정 구덩이 화장실(일명 재래식 화장실)-->잿간 발효 화장실--> 배기관이 있는 고정구덩이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바이오가스 화장실--> 진공 화장실--> 우주선 화장실 등으로 발달하였다(김성원, 2020, 65-66).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똥 누는 공간으로서의 푸세식 뒷간과 변소, 그리고 씻는 곳과 싸는 곳의 통합으로서의 현대 수세식 화장실로 화장실을 단순히 이분화하는 것은 똥에 대한 통합적 성찰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똥 누는 공간으로서의 변소, 씻고 싸는 공간으로서의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똥오줌의 생태적 활용을 위한 최근의 대안적 화장실 문화를 모두 함축한 용어로서 '뒷간'이란 전통적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뒷간이란 용어에는 배변 활동과 관련한 시공간적 논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똥에 대한 신학적 의미까지 담을 수 있는 확장적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똥'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주로 과학계에서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특히 의학계에서는 똥을 활용하여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약)을 개발하거나, '위생과 질병'이란 측면에서 각종 전염병이 어떻게 똥과 관련하여 전염되는지 탐색하기도 한다(Boehme, et al., 2021: 666-676; George, 20019; 317-318; Feachem, et al., 1983: 9-12). 그리고 환경공학계에서는 분뇨처리 및 똥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김성원, 2020:64-92). 그리고 똥은 인문학 분야에서도 성찰의 대상으로서 연구되고 있다.[1] 특히 똥은 권

1) 최근 들어 뒷간을 단순한 배변의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미학과 철학, 생태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 창의적, 실용적으로 적용해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임재해의 "뒷간의 문화적 거리와 생태계 순환"(1993), 장보웅의 "한국 통시(뒷간) 문화의 지역적 연구"(1995), 이동범의 "생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뒷간"(2000), 정연학의 "뒷간, 그 서구문화의

정생의 동화『강아지똥』(1969)이나 정호승의 최근 시집『당신을 찾아서』(창비, 2020) 속의 똥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탐색되고 있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포함한 신학 분야에서의 똥에 대한 성찰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신학이 신과 인간 그리고 구원과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에 초점을 둔 까닭에 똥과 같은 형이하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만 최근 생태신학, 쿰란공동체, 그리고 제사장 문서(P)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연구가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조태연, 2001; 차정식, 2014; 정혜영, 2015; 홍인표, 2021; Jensen, 2020). 따라서 본 논문은 종교교육을 위한 기독교 신학의 토대로서 뒷간신학의 조감도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성서에 반영된 뒷간 담론은 무엇인가? 둘째, 뒷간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서 뒷간신학이란 무엇인가?

Ⅱ. 성서의 뒷간 담론

1. 히브리 성서에서의 똥

히브리 성서에서 나타난 똥의 이해는 크게 세 차원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계약과 관련한 똥의 이해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모세 계약의 기본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모세 계약의 기본정신은 레위기 19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9:2)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출애굽기 12-14장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와 함께 출애굽기 20장의 ‘모세 계약’을 배경으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자유민이 된 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십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Anderson, 198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다(출20장).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확실한 식민지”(2001), 그리고 신제문 · 조현신의 “뒷간에 나타난 한국 조형성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2006)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사이언스월든 인문사회팀에서 똥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다. 자세한 것은 사이언스월든 인문사회팀,『사이언스월든 인문사회팀자료집』(UNiST, 2020) 참조. 이 자료집 안에는 똥에 대한 여러 발표물들이 담겨있다. 최진석, “르네상스기 똥의 ‘실루엣”, 소준철, “1945-1985년 서울의 똥,” 전혜진, “더러운 똥, 즐거운 똥, 이상한 똥,” 박정수, “똥-돈-삶”, 이소요, “장내 미생물을 사랑한 예술가들,” 김성원, “수세식 화장실, 그 적정하지 않은 기술,”, 차민정, “아이들은 왜 똥을 좋아할까?”, 이채영, “똥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등이 있다.

살기 위해 율법(십계명)을 지켜야 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때 똥(뒷간)과 관련한 규례도 논의되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다.

> 당신들은 진 바깥의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 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 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신23:12-14)

결국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똥은 불결한 것이다. 그래서 뒷간은 집이나 혹은 군대의 진영 밖에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 갈 때에는 연장을 갖고 가서, 뒷 일을 본 후 똥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덮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심으로(“**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강조표시는 필자), 즉 하나님과 맺은 계약(조건적인 모세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진영(집)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14b절). 물론 뒷간에 다녀온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막7:2). 이처럼 뒷간을 멀리 만드는 것이나 또 뒷간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단순히 위생적인 일상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관계를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론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구약성서에서의 똥과 관련된 규례는 제사장의 ‘정결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결법은 앞서 설명한 모세 계약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명시하는 토라 곧 율법의 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레위기 11-15장에 명시된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레위기 11-15장에서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레11장),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레12장),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과 천이나 가죽 제품에 생기는 곰팡이(레13장), 환자를 정하는 예식과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레14장),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정하게 되는 경우(레15장)을 명시하고 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의 주요한 세 사례는 피부병, 유출(출산이나 생리), 그리고 시체로 인한 부정이다. 이것은 부정을 지닌 사람을 ‘진영’ 밖에 머물도록 한 규례이다(민5:1-4).이렇게 부정한 이들을 진영 밖에 머물도록 명했던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려는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뜻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젠슨(Philip P. Jenson)은 이러한 규례를 더욱

세분화시켜 ‘거룩의 등급’(graded holiness)으로 보다 체계화되었음을 밝혀주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의 공간의 경우, 크게 다섯 구역으로 등급화된다. I구역은 ‘지성소’(קֹדֶשׁ הַקָּדָשִׁים, 코데쉬 하코다심), II구역은 ‘성소’(קֹדֶשׁ, 코데쉬), III구역은 ‘뜰’(הֶחָצֵר, 헤이쩨르)이다. 이 세 구역은 모두 ‘거룩의 영역’(מָקוֹם קָדֹשׁ, 마콤 하도쉬)으로서 ‘성막’(혹은 성전, הַמִּקְדָּשׁ, 하미크다쉬)을 등급화한 것이다. IV구역은 성막 밖의 공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곧 ‘진영’(מָקוֹם טָהוֹר, 마콤 타호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진영은 모두 정결한 곳으로 간주되었다. 마지막으로 V구역은 ‘부정한 곳’(מָקוֹם טָמֵא, 마콤 타메; 레14:40, 41, 45)으로서, 그곳에는 부정한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다(Jenson, 120-121). 특히 이곳은 앞서 인용한 신명기 23장 12절에 의하면, ‘뒷간’도 포함된다. 말하자면 뒷간은 부정한 곳이다. 물론 정결법은 부정한 사람들이 머무는 부정한 공간으로서의 V구역을 뒷간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간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물로서 정화가 필요한 곳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로 알려진 에스겔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겔4:12)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에스겔은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완곡히 거절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호소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꿔서 좀 완화된 제안을 하신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겔4:15)

이처럼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할 때, ‘똥’(인분)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음을 밝혔다. 이것은 똥과 더 나아가 똥 누는 공간으로서의 뒷간이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곳임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똥 그 자체는 랍비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항상 제의적 부정과 반드시 연계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즉, 땀, 악취나는 고름, 이와 함께 분비되는 피, 그리고 여덟 달 만에 유산된 태아와 함께 분비되는 액체와 달리 배설물은 부정한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심지어 사마리아가 시리아와의 전쟁으로 곤궁했을 때, 열왕기하 6장 25절(“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이 은 다섯 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에 따르면, 비둘이 똥은 은으로 교환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배설물이 반드시 부정한 것으로만 간주되지 않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후기 유대교의 쿰란 공동체에 의해 더욱 철저한 위생 기준에 따라 실천되었다. 그들은 뒷간 곧 변소란 이름조차 거명되는 것에 삼가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뒷간을 성서적 용어를 빌어 ‘손’ 또는 ‘손을 위한 장소’(*maqom yad*)라고 불렀는데, 여기

서 손은 '남자 성기'를 에둘어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들은 뒷간의 위치를 거주 공간에서 2,000규빗(약900-10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아울러 배변을 하는 자리와 공간 배치는 철저하게 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뒷간은 사방이 밀폐되고 지붕을 갖춘 공간 안에 구덩이를 파놓고 볼일을 보게 하는 구조였다. 이와같이 별도의 설비된 변소가 없는 경우에도 그들은 사적으로 은밀한 자리에서 볼일을 보고 반드시 그 똥을 구덩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차정식, 2014: 297).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쿰란 공동체의 성원들은 안식일에 주거장소를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된 출애굽기 16장 29절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똥 누는 일을 음식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일'로 간주하였다(차정식, 2014: 298). 이와 같이 쿰란 공동체의 정결예법은 일반 유대인들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여 배변 행위를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똥을 눈 뒤에는 반드시 몸을 물에 담가 씻어야 했다. 쿰란 공동체의 뒷간 문이 회칠한 욕조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것은 배변의 부정함을 제의목적을 통해 씻어 내어 항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종교심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 성서에 반영된 뒷간의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부정'의 방식이자 하나님과의 계약(모세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뒷간의 일들은 제사장들의 정결예법에 따라 '거룩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구체화되었으며, 후기 유대교의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 더욱 철저히 몸을 더럽힐 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예수의 똥 이해

앞에서 살핀 유대교의 풍습은 예수 시대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뒷간 문화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 보다 더 큰 가치를 중심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즉 유대 정결법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단순히 이분법적인 '거부'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예수의 사역은 유대 정결법의 폐지가 아니라 이를 성취하고 완성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티센(Mathew Thiessen)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함의 근원인 '레프라'(*lepra*, 나병), '생식기 분비물'(*zavah*, 생리), 그리고 '시체'를 중심으로 유대 정결법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설명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똥'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다(Thiessen, 2021).예수의 똥 이해와 관련한 성서적 전거는 다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예수는 유대교의 음식 규정과 관련하여 똥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풍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차정식의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달리 똥이나 오줌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

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예수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막7:15-16). 그리고 예수는 덧붙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밖에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막7:19). 예수는 이런 말씀을 통해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뒤로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똥을 싸는 배변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는 똥과 똥 누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결코 죄악으로 여기지 말 것을 암시한다. 오히려 예수는 음식이 소화되어 더러운 찌꺼기인 똥으로 변화될지라도, 그것이 배설되어야 우리 몸이 이롭게 되니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먹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찌꺼기의 배설 덕분에 음식이 깨끗해진 것이니 배설과 배설물은 고맙고 중요한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다(차정식, 2014: 292-293). 이처럼, 예수는 똥과 오줌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의식, 특히 제사장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 대신에 그 자체로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예수는 더 나아가 똥의 바른 이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핵심 가치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난다. 예수의 비유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조태연은 이와 관련한 설득력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눅13:6-9)의 비유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땅’의 비유로 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과 더불어 ‘똥’과 깊이 연관된 나라임을 역설하였다(조태연, 2001: 72).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의 비유는 이렇다.

>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κόπρια,** 추가)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눅13:6-9)

예수의 위 비유에서 과수원 지기는 과수원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면서 그는 1년 동안 ‘거름’을 주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니 그 때 가서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대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성서의 본문은 과수원 주인이 그 제안

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 침묵에 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은 다른 공관복음서 곧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마21:18-19; 막11:12-14)과 연결시켜, 누가복음의 본문 역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저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조태연은 누가복음의 비유가 저주의 내용이 아닌 과수원 지기의 제안으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는 왜 침묵했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나무나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과수원 주인과 과수원 지기의 대화'와 '과수원 지기의 말'에 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 비유의 핵심은 한 해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청한 과수원 지기의 새로운 제안으로서, 온전히 땅의 비유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수원 지기의 비책은 나무의 '둘레'(땅)를 파고 '거름'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즉 과수원 지기의 발언의 핵심은 땅의 고유한 힘(지력)을 회복해야 비로소 나무가 열매 맺을 것이라고 주장이다.

여기서 조태연은 과수원 주인의 명령("땅만 버리게 하니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과 과수원 지기의 새로운 제안이 모두 땅과 관계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비유는 "무화과나무가 신의 축복과 평화(열매)를 가져올지 아니면 심판과 재앙을 가져올지는 온전히 '땅'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름을 뜻하는 희랍어 '코프리아'(κόπρια, 8절)은 '똥 더미'를 의미한다(조태연, 2001: 83). 따라서 이 비유에서 인간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땅에 심겨진 나무의 둘레를 파고 거기에 '똥거름'(κόπρια)를 줌으로써 땅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온전히 '땅'의 회복에 있음을 역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똥'(κόπρια, 거름-생태-땅의 회복)에 의해 땅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희망의 나라임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비유가 암시하는 바는 파괴된 땅, 특히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된 땅을 살리는 길은 '과수원 지기'의 똥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과수원 지기는 똥의 순환을 통해 자연(땅)과 문화(문명)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정혜영, 2015: 203). 가장 더러운 똥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의 똥 이해는 히브리 성서가 강조하는 위생적으로 더럽고 신학적으로 부정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관점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전환시켜 준다. 물론 예수는 적극적으로 유대전통이 강조해 온 정결 예법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가장 부정한 것조차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뒷간신학의 조감도

1. 생태신학으로서의 뒷간신학: 똥의 소외와 똥의 구원

예수가 강조했던 '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기독교가 엄격한 이원론적 사상이라 볼 수 있는 신플라톤주의 사상과 연계된 중세 신학이 발전하면서 자연과 함께 점차 소외되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죽음 이후의 내세를 향한 삶을 강조하는 신학 이데올로기가 탄생되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개신교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신교 신학은 똥을 금기시하고, 심지어 악마화하게 된다. 이것은 개신교의 교리적 핵심이 인간 영혼의 구원을 그 중심에 놓은 것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개신교 신학의 중심에는 늘 '칭의'(justification)으로 불리는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다. 악의 기원과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 따른 인간 영혼의 타락으로 인한 죄에서 발생하며, 악의 극복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서 찾는다. 특히 어거스틴은 '원죄'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원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신학이 구원론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을 때 '자연'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논의로 그것을 축소시킨 점이다. 말하자면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에서 창조 영성은 더욱 위축되었고, 구원은 오직 인간 중심적인 구원으로 이해되었다(김균진, 2005: 192).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구원의 논의를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가디리고 있습니다.(...)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롬8:19-23)

본문에서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 곧 생태계 모두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과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구원은 결코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 구원론은 이제 생태위기의 시대에 모든 만물의 구원을 향하여 그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구원론은 이제 생태-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다면, 구원은 먼저 이 세계의 피조물 중 가장 천시받고 혐오스런 대상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가장 고통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가 강조한 해방신학의 핵심적 원리인 "가난한 자의 우

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Nickolohoff, 1996, chap. 2).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는 피조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일이다. 비록 구티에레즈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야할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상정했지만, 생태-해방신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똥'이다. 똥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이 천대받고, 또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인간의 주요 공간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현대에 와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세식 화장실에서 물과 함께 멀리 버려진다. 박승옥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2000만 명이 하루에 똥오줌을 보내기 위해 수세식 화장실에서 쓰는 수돗물의 양만 180만 톤이며, 1년이면 약 6억 6000만 톤이라고 한다. 그것은 수도권 주민들이 자신의 똥오줌을 씻어내는 일에만 1년에 동강댐의 2개 정도의 물을 쓰고 있다. 이러한 인류의 문명을 일컬어 그는 "똥의 학살"이라 표현하였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박승옥, 2006: 54-58). 말하자면 똥의 학살은 똥을 철저히 악마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유기농을 하며 인분을 퇴비화해 재순환시키는데 앞장선 조셉 젠킨스(Joseph Jenkins)는 자연에 폐기물(쓰레기)이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인간에 의해 폐기물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똥의 회복을 주장한다.

> 기이하게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배설하고 있는 인분에 대해 끈덕지게 외면해 왔다. 우리가 이처럼 인분의 재순환 문제에 대해 마치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고 모른 체하려는 하는 타조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똥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어하는 사회 정서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적 금기로서 화제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그 문제를 골똘히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자연계에는 폐기물이란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잘못된 개념을 없애기 위한 비밀의 열쇠는 우리 인간이 찾아야 한다. 자연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열쇠를 인간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Jenkins, 2004: 24)

따라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구원의 대상은 다름 아닌 똥이다. 인간으로부터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똥의 구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생태신학은 현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똥의 구원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베리는 중세말인 1347년경 흑사병과 함께 당시 인류의 1/3이 멸절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는 왜 그 많은 인류가 자연의 공격(흑사병)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자, 당시 교회는 자연을 더욱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신학적 해명을 시도하였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중세시대에 갖고 있던 자연의 신성, 즉 자연은 초월자이신 신과의 '접촉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의 신성조

차 인정하지 않은 채, 자연 전체를 모두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베리는 이러한 자연의 악마화를 부추기면서 자연 세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한 근대신학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은 현재의 과학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간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주적 구원'을 위한 생태신학을 제안하였다(Berry, 2006: 119).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똥'을 포함한 자연과 우주 전체를 구원하는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똥의 구원은 이 시대의 큰 과제이며, 똥의 구원을 위한 뒷간신학은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더욱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뒷간신학이 똥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생태-해방신학으로서 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하여, 똥의 부정성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 많은 질병들이 '똥'과 깊이 연관되어 발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이다. 이것은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성으로 발생한다. 특히 1898-1907년 사이 인도에서는 최소 37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다.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기근이 심한 나라와 혼잡한 피난민 캠프와 도시의 빈민가에 콜레라가 퍼졌다. 따라서 생태-해방신학은 똥이나 더러운 물로부터 생기는 전염병을 벗어나기 위해 깨끗한 물과 청결의 유지는 당연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똥의 구원은 소위 위생의 중요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똥이 갖고 있는 자연의 순환성과 창조성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똥의 구원은 히브리 성서의 정결법 정신을 비판적으로 존중하면서, 그것을 넘어 자연의 구원과 신성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대화신학으로서의 뒷간신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축 중 하나는 창조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신앙이다. 이 속에는 인간의 똥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똥을 자신의 몸 속에 담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다(창1:27, 31). 특히 성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땅의 흙'(man of dust from the ground, הָאָדָם עָפָר֙ מִן־הָאֲדָמָ֔ה, 하아담 아파르 민 하아다마)으로 지으셨다고 증언한다.(창2:7) 여기서 '아담'(הָאָדָם)은 '땅'(ground)을 뜻하는 여성명사 '아다마'(הָאֲדָמָה)에서 나왔다. 즉 인간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똥을 자신의 존재 안에 포함하고 있는 아담인 '인간'과 배설된 똥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아다마인 '땅'은 서로 낯선 타자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땅의 성격을 간과하거나 혹은 종종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채 신학연구에서 그것을 소외시켜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의 땅의 성격, 곧 예수가 갖고 있는 인간적 속성을 종종 신적 속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기며 소홀히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대 신학에 와서 '역사적 예

수'(Historical Jesus)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것이 비록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수의 몸(땅)의 측면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백한 칼케돈 신조의 위반이다.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Pöhlmann, 2012: 349-258). 따라서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예루살렘'을 상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측면과 더불어, '갈릴리'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측면, 곧 갈릴리 해변과 골목길을 거닐며, 또 먹고 마시고 똥을 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성서비평학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 후반 예수 세미나(Jesus Seminar)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탐구되어온 '역사적 예수'의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Funk, 1993; Dunn, 2005, 2010). 하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 역시 그 한계도 적지 않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에서 주로 거시적 맥락에서 그것을 탐구함으로써 '예수의 식습관이나 뒷간문화' 같은 예수 당시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미시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일상적 삶과 관련하여 신학은 이웃학문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똥'과 관련한 뒷간신학은 적어도 세 분야와 긴밀한 대화가 요망된다. 그것은 신학이 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이웃종교와 대화하는 것이다.[2] 특히 똥과 관련한 신학과 문학의 대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신학자들보다 교회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독교 문학가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오래전부터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솔하게 그것을 잘 탐색하여왔다. 특히 한국의 몇몇 문학가들은 '똥'과 관련한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을 작품 속에서 다루었다. 똥을 소재로 작품을 쓴 가장 대표적인 문학가로는 동화작가 권정생, 시인 정호승, 그리고 소설가 김곰치를 들 수 있다.

우선 권정생은 유명한 동화 『강아지똥』(1969)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비천한 똥에서 찾아내고 있다. 권정생은 『강아지똥』에서 흙덩이는 버려진 강아지똥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쓸데 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엔가 귀하게 쓰일 거야."(권정생,

2) 똥과 관련한 심리학의 연구는 융의 심층심리학과의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융은 "똥덩어리" 꿈을 통해 '자기부정성' 곧 인간의 '그림자'를 설명하면서, 그림자(똥덩어리)는 하나님이 만든 본래 인간의 형상이며, 매우 쓸모 있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따라서 그림자(똥)를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포섭함으로써 진정한 참 자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똥과 관련된 이웃종교와의 대화는 앞으로 충분히 열려있다. 한편, 동양의 유불선 종교는 몸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 대신 천인상관(天人相關)의 도 곧 몸과 우주를 서로 감응시키는 수행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몸)로부터 유리된 독자적 인간이해나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는 이원론적 인간이해를 거부한다. 특히 불교의 '사사무애'(事事無碍)를 강조하는 화엄사상, 이천식천(以天食天)을 중시하는 동학의 최시형 사상과 그의 사상을 따른 그리스도인 장일순의 생명사상 등은 똥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이웃종교와 대화함으로써 몸의 이해 지평을 넓히고, 특히 똥과 관련한 새로운 신학적 통찰과 수행종교의 차원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야스오, 2006; 김승혜 외, 2005).

2002: 31-43).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강아지 똥도 귀하게 쓰일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권정생은 비록 똥과 같은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권정생의『강아지 똥』을 연구한 정혜영은 이러한 권정생의 똥 사상을 일컬어 “똥 속의 하늘”이라고 명명하였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혜영, 2015, 60).

다음으로 정호승은 시를 통해 예수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존재였음을 노래한다. 특히 그는 <새벽>이란 시에서 ‘똥 누는 예수’를 묘사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를 그려주었다.

> 똥을 누다가 별을 바라본다/창가의 풍란은 또다시 허옇게 뿌리를 드러내고/길가의 나무들은 피를 흘린다/무논의 어린 모는 잠도 자지 않고/물에 뜨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여자들은 죽은 아들을 업고 어디론가 달려가고/남자들은 초승달에 옷을 걸어놓은 채/술취해 죽은 듯이 잠들어 있다/젊은 예수가 성당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소주를 마시며 맨발로 논밭을 쏘다닌다/집 없는 개들이 그 뒤를 따른다/사람의 마음보다 더 가난한 개들의 마음이/그 뒤를 따른다

이 시에서 예수는 성당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소주를 마시며 맨발로 논밭을 쏘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똥을 누다가 별을 바라본다.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똥을 누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수 많은 상상을 한다. 창가의 풍란은 어떤지, 길가의 나무들은 또 어떻지, 그리고 그것들이 척박한 이 땅에서 제대로 생명의 구실을 하며 살아야 할텐데 걱정하면서 상상한다. 이처럼 정호승은 똥을 누는 예수, 그리고 똥을 누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를 토대로 희망을 보고, 또 그를 따르는 슬픈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그런 점에서 정호승의 시들은 똥 누는 예수를 따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똥 누는 존재들처럼 그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시들은 <내 얼굴에 똥을 싼 갈매기에게>, <별똥별>, <똥>, <마음의 똥>이다. 특히 <마음의 똥>에서 정호승은 “내 어릴 때 소나무 서 있는 들판에서/아버지 같은 눈사람 하나 외롭게 서 있으면/눈사람 옆에 살그머니 쪼그리고 앉아/한 무더기 똥을 누고 돌아와 곤히 잠들곤 했는데/(중략)/이제는 아무 데도 똥 눌 들판이 없어/아버지처럼 외롭고 다정한 눈사람 하나 없어/내 마음의 똥 한 무더기 누지 못하고/외롭고 쓸쓸하다”고 적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각자 스스로 아버지처럼 다정한 눈사람이 되어 누구든 즐겁게 똥을 눌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고 완곡하게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정호승의 시 세계를 연구한 최미정은 정호승 시에서 중요한 시적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똥’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정호승의 시에 나타나는 똥은 종교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겸비와 회개, 승화와 재생의 의미로 나타나며, 동시에 그것은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 수평적 열림의 소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사건이자 계기로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똥은 인간의 동물성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인간과 동물을 가로지르는 지점에 ‘똥 누기’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시인은 '똥을 누는' 행위를 통해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 되기, 어린아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흥미롭게 해석해 주고 있다(최미정, 2019: 212).

한편, 소설가 김곰치는 그의 소설 『빛』(2008)에서 역사적 예수란 누구인지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매우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똥습예수'라고 말한다. 여기서 똥습예수는 다름 아닌 똥구멍에 습기찬 예수로서 누구보다 인간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똥습예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나는 예수가 심십 몇 년 평생 누었던 똥을 방 안에 불러모았다. 방이 똥으로 넘쳐났다. 똥더미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이름은 똥습예수, 똥구멍에 늘 습기찬 건강한 나의 예수. 나도 그대만큼 열심히 똥 눌 거야! 최소 칠십 년은 누라고 세상에 내보냈더니, 반도 못 누고 그대가 죽었을 때, 하느님이 얼마나 실망하신 줄 알기나 해! 그대보다 나는 훨씬 오래 살 거고, 두 배 세 배로 많은 똥을 눌거야!(김곰치, 2008: 327)

위 인용문이 우리의 이해를 돕듯이, 김곰치의 "똥습예수"는 똥구멍에 습기가 찰 정도로 열심히 삶에 충실했던 존재, 또 먹는 것과 싸는 것이 잘 균형이 잡혀서 노랗고 굵은 똥을 멋지게 쌌던 존재, 특히 너무나 건강하게 똥을 싼 나머지 사람들이 보통 70년 싸야 이룰 똥의 총량을 반으로 줄여서 30년 만에 모두 싸버리고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한 "나의 예수"를 소개해 준다. 이처럼 작가는 똥습예수에서 신체적으로 건장한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릴 뿐만 아니라, 똥의 냄새마저 그대로 가로지르며 위선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이룬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권정생과 정호승, 그리고 김곰치의 문학 작품들은 '똥'을 매개로 하여 상상력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한국 신학계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예수는 결코 '교리'라는 이름으로 박제화되어 박물관과 같은 교회당에 화석처럼 그럴듯하게 걸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똥구멍에 습기찬 똥습의 존재요, 똥을 누며 하늘의 별을 셀 줄 아는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 속에서 하늘의 사명을 볼 줄 아는 참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말이다. 이처럼 뒷간신학은 문학을 비롯한 이웃학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3. 비판신학으로서의 뒷간신학

똥을 화두로 한 뒷간신학은 일종의 비판신학으로서, 문명비판과 교회비판을 시도하는 예언자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 성서 속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Torah)에 근거하여 당시 문명비판자로 활약하며 잘못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또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뒷간신학도 그처럼 이 시대의 문제, 특히 자본주의 문명과 교회의 타락성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비판신학이다(조정환, 2011).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뒷간신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뒷간신학은 근대 이성의 출현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하여 도시산업문명의 부산물로서 똥을 소외시켜 그것을 '쓰레기 중의 쓰레기'로 간주한 채 심지어 똥을 악마화시킨 것을 비판한다. 그것은 철저한 똥의 무가치화와 똥의 은폐, 그리고 똥의 무단폐기이다. 이것은 아파트 문화에서 일상이 된 '수세식 화장실'로 상징된다. 물론 근대 이성의 상징으로서 수세식 화장실은 도시문명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콜레라를 비롯한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똥은 이제 수세식 화장실의 물과 함께 깨끗이 쓸어버려져야 할 더러운 존재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오직 냄새나는 혐오물일뿐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똥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못쓰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지금도 물과 함께 모두 버려지고 있다. 이제 똥은 우리의 생활세계로부터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은폐되어 조용히 학살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목욕물을 버리려다 물속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마저 버린 격이다.

하지만 똥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다. 똥과 쓰레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썩는지의 유무'이다. 똥은 썩어서 다시 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는 썩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쓰레기는 거의 영원히 썩지 않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핵폐기물이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핵폐기물 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하지만 똥은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곧 썩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거름으로 변화되면, 이제 농작물에게는 밥이 된다. 말하자면 똥은 쓰레기가 아니라 밥이다. 따라서 뒷간신학은 똥이 쓰레기가 아니라 밥일수도 있음을 애써 부정하거나 모르는 이 시대와 교회를 비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똥이 밥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예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눅8:4-10).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똥처럼 아낌없이 자기를 비워 썩일 때, 그것은 생명의 밥이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따라서 뒷간신학은 현대사회가 더 이상 똥을 악마화시켜 핵폐기물급 쓰레기로 취급하지 말 것을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임과 동시에, 똥은 오히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밥이라는 생명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뒷간신학은 청결 유지의 명분으로 똥을 수세식 화장실의 물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추방시킨 이후 인류의 물 부족 및 오염문제가 초래된 현대 '위험사회'(risk society)에 경고를 알리는 일종의 현대 문명비판이다. 벡(Ulrich Beck)에 의해 많이 알려진 위험사회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회가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이유에 의해 그 사회적 토대를 상실해 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함축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벡은 근대화를 두 단계로 설명한다. 제1단계는 중세 봉건제가 몰락한 뒤 지금까지 진행된 근대화를 일컬어 '제1근대화'로, 그리고 제2단계는 제1단계의 근대화가 끝나가면서 이르게 된

현시점을 ‘제2의 근대화’로 본다. 곧 제2근대화란 ‘근대화의 근대화’로서, 두 근대화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벡은 『위험사회』의 주요목표로 삼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근대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벡은 ‘위험’(risk)을 들고 있다. 달리 말해, 근대 계몽주의에 근거한 제1근대화 시기의 위험은 과학 기술을 통한 인류의 물질적 정신적 진보에 불가피한 부산물 같은 것으로서 그렇게 심각하게 않았다(Beck, 1997: 43, 55). 그러나 제2근대화 시기에 발생하는 위험은 보다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제1근대화 시기의 위험은 불가피한 부수효과로 간주되었으나, 제2근대화 시기의 위험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보다 치명적인 위험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물과 연관시켜 이해하면, 제1근대화와 더불어 시작된 수세식 화장실 문명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세식 화장실 문화의 시작은 도시문화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각종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근대화 시기의 물의 위험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인류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것은 전지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난 매우 심각한 것으로써, 지구생명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하는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른다(손원영, 2016: 92-93). 벡의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위험사회”요 치명적 위험의 일상화라고 말할 수 있다(Beck, 1997, 43).

물론 현대의 수세식 화장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은 ‘비순환적 방식’으로 똥과 오줌을 폐기하기 위해 고비용으로 생산된 수돗물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물을 오염시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한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의 길이는 14만 9030km로 지구 네바퀴 반에 해당한다. 하수보급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93.9%, 서울 100%, 경기 94.6%, 전남 80.7%이다. 농촌지역(군)은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한국의 경우, 물의 오염비율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하수로 발생하는 비율이 42%로 가장 많고, 산업폐기(37%)와 축산폐기(8%)가 그 뒤를 잇고 있다(한강홍수통제소. 물과 환경. http://www.wamis.go.kr/ewi/sub/sub05/sub05_05.aspx. 2021.10.11. 검색). 수세식 변기는 보통 한번 물을 내릴 때 수돗물 10리터가 소요된다. 한국인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의 25%인 45리터의 물이 수세식 화장실의 똥과 오줌을 눌 때마다 하수관으로 빠져나간다(김성원, 2020: 72). 서울-경기만 하더라도 2000만 인구의 화장실 운영을 위해 매년 동강댐 2개 정도의 엄청난 물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훌륭한 하수처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하수의 재활용 비율을 여전히 높지 않다. 2017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의하면, 매립장까지 이송된 하수찌꺼기(분뇨포함)는 소각(19%), 매립(15%), 건조(6.1%) 처리되고, 연료, 비료, 시멘트 등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절반 정도(56.8%)이다. 특히 하수의 물을 정화해 재사용되는 비율은 15.9%로 하수처리장 내 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이용되고 있다. 결국 수세식 변기의 깨끗한 화장실 신화에 갇혀 있는 사이에 하수로 내려보내는 우리의 똥과 오줌은 고

도로 발전된 하수처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지진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똥 싸기이다. 상하수도체계가 붕괴되면서 하수구는 막히고, 수세식 화장실에는 똥이 당장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뒷간신학은 이와 같은 위험사회 및 기후위기의 한 복판에서 인류가 수세식 화장실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기독교적 삶인지 진지하게 비판적으로 질문하도록 이끈다.

셋째, 뒷간신학은 교회비판학의 측면을 갖는다. 똥은 종종 냄새나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혐오의 물질로 인식된다. 그래서 똥은 우리에게 회피의 대상이자 제거의 대상이 되기도 하다. 동시에 똥은 약으로도 쓰이고 많은 생명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거름이 되기도 하다. 이처럼 똥의 양가적 이미지는 뒷간신학으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융(Karl G. Jung)이 소개한 “똥 덩어리 꿈”은 뒷간신학이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냉정하고 용기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 나는 지옥의 불길 속으로 즉시 뛰어들려고 하는 것처럼 용기를 끌어 모아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는 내 앞에 대성당과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느님은 세상 저 위 높은 곳에서 황금보좌에 앉아 있고, 보좌 밑으로부터 거대한 똥 덩어리 하나가 화려하게 채색된 새 지붕에 떨어져 지붕을 산산조각내고 대성당의 벽을 모조리 부수고 있다.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암청난 안도감과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저주를 예상했는데 그 대신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임했다. 나는 행복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었다. 내가 하느님의 가차없는 준엄함에 쓰러져 복종하자 하느님의 지혜와 선이 나에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내가 계시를 체험한 것과도 다르지 않다(Jung, 2007: 80).

융의 이 똥 덩어리 꿈속에서 나타나는 ‘똥’은 인간과 종교가 두려워하고 억압해온 ‘그림자’(shadow)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성당과 똥은 각각 의식과 그림자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똥 덩어리, 곧 그림자는 ‘하느님의 황금보좌’에서 내려왔다. 인간과 종교의 그림자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인간과 종교의 본래 참 모습은 그림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융의 이 체험은 억압되었던 그림자가 해방되는 경험이자 하나님과 융이 하나되는 누미노제의 체험이었다(정혜영, 2015: 96). 여기서 우리는 뒷간신학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똥으로 상징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똥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돕는다. 특히 융의 똥 곧 그림자처럼 감추어져 있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기꺼이 자신의 한 모습으로 껴안도록 용기를 준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똥처럼 터부시하며 교회로부터 배제시킨 문화가 적지 않다. 더욱이 악취

와 질병이란 이름으로 똥 덩어리처럼 여기며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킨 그림자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아마도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한국문화', '이웃 종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것들을 모두 추하다고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공동체로부터 배제시켰다. 하지만 뒷간신학은 그런 그림자에 용기있게 직면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마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합해져야 진정한 나이듯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영역까지 모두 하나로 포섭함으로써 참 교회의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 결국 교회에 대한 비판학으로서의 뒷간신학은 우리가 냄새나는 똥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듯이 교회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똥처럼 부끄럽게 여겼던 신앙의 모습들을 기꺼이 자신의 한 부분인 그림자로 인정하고 포함시키는 용기를 가지도록 돕는다. 그래서 뒷간신학에 의해 조명된 한국교회는 교회세습이나 물신숭배 같은 불쾌한 냄새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이웃종교 혹은 여러 소수자들의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로 간주하여 기꺼이 껴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4. 성례전적 영성학으로서의 뒷간신학

20세기 후반부터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종교나 신학의 분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 심지어 자연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손원영, 2009). 이런 과정에서 최근 신학은 '기독교 영성학'을 자신의 하위 학문의 한 범주로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편의상 기독교 영성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일치 및 그와 동행하는 일상의 삶'으로 정의한다면, 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한 기독교 영성학은 일종의 '성례전적 영성학'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성례전적 영성학은 '성례전적 사고'(sacramental thinking)에 기반한 영성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례전적 사고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틸리히(Paul Tillich)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 중 개신교 신학을 비판하면서 성례전적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그는 낭만주의를 잃어버린 채 도덕주의로 축소된 19세기 계몽주의적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율법 대신 은총에 눈을 돌릴 것과 함께,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례전적 감정(sacramental feeling)과 성례전적 사고(sacramental thinking)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 성례전적 사고는 무한이 유한 안에 현존하고 유한이 무한의 명령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 안에 구원의 능력, 곧 신적인 것의 현존의 능력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다. 이것은 낭만주의가 재발견한 것이다. 물론 성례전적 사고는 초기교회의 성례전적인 경험 전체 안에 있었지만, 종교개혁이 행한 비판에서 크게 상실되었고, 그러다 마침내 자신의 바탕을 도덕적 명령 위에만 두었던 계몽주의에서 상실되었다(Tillich, 1967: 443).

여기서 성례전적 감정과 사고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선행하는 신적인 것의 현존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한 속에 무한의 임재 혹은 현존의 체험'을 이해하는 방식이요 또 "유한이 무한과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매개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례전적 사고는 자연의 한 부분인 '똥'의 모습을 깊이 숙고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무한한 신과의 일치에 이르게 된다. 마치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례전인 성만찬이 떡과 포도주라는 유한한 물질 속에 신의 현존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라면, 떡과 포도주는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성례전적 존재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해방신학자 보프(Leonard Boff)는 성례전적 접근(sacramentality)을 소개하면서 유한한 사물이 영원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Boff, 1981). 특히 그는 우리의 일상에서 접촉하는 아주 하찮은 사물들이 어떻게 초월자인 하나님과 연결되는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대표적인 몇몇 성례전적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 집의 물잔", "아버지가 피우시던 꽁초", "어머니가 구우시는 빵", "성탄 선물로 받은 양초", "살아온 사연들", "시골 학교의 선생님", "정든 옛 집", "삶의 성사스런 매듭들(7성례)", "성사들의 창제자 그리스도", "내뱉은 말" 그리고 "화해와 만남" 등이다. 물론 보프는 여기서 '똥'을 성례전적 존재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피우시던 꽁초를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성례전적 존재로 언급한 것으로 보면, 똥 역시 성례전적 존재로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결국 똥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후 나오는 배설물이 아니라, 성례전적 사고 곧 기독교 영성학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는 성례전적 존재요 더 나아가 하늘을 품고 있는 거룩의 나이다. 그런 점에서 무위당 장일순이 무수한 '너'의 총체성인 세상과 우주 그리고 나 자신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은 성례전적 사고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나는 미처 몰랐네/그대가 나였다는 것을/달이 나이고/해가 나이거늘/분명 그대는 나일세."(이용포, 2011: 146). 결국 뒷간신학은 일종의 성례전적 영성학으로서 똥과 같은 성례전적 존재를 매개로 하여, 나와 하나님의 일치,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만물과의 신비한 연합과 환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Ⅳ. 결 론

똥은 더러움과 혐오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똥'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공격한다. 심지어 똥은 근세에 들어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세균과 질병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 제거되어야할 것으로 타자화되었다. 그래서 근대적 시선 장치를 통해 "똥은 문명의 적"이 되었으며 비위생적이며 냄새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정혜영, 2015: 328). 똥에 대한 이런 보편적 인식 위에서 본 논문은 똥의 성서적 의미와 똥과 관련한 신학적 성찰로서의 뒷간신학을 조감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똥의 성서적 의미로서 두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똥은 제사장의 정결법의 전통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것은 차후에 쿰란공동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예수는 표면적으로는 히브리 성서의 정결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더 큰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유대의 전통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눅13:6-9)의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름'(κόπρια)이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매우 독특하였다. (2) 똥과 화장실 문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서 뒷간신학은 네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똥은 생태신학의 관점에서 결코 부정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똥의 구원이 필요하다. 둘째, 대화신학의 관점에서 똥의 참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들 사이의 대화가 요청된다. 특히 지금까지 신학의 분야에서 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뒷간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자연과학과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가 요망된다. 셋째, 똥은 비판신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문명 및 교회 비판의 원리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똥의 이중성(더러움과 거름)을 토대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성례전적 영성학의 측면에서 볼 때 똥은 비록 더러운 혐오의 대상이지만, '똥 속의 하늘'처럼 성례전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똥과 관련한 우리의 인식 전환을 위해 종교교육자들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References

강희천 (1991).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Kang, H. C. (1991). *Thought on Christian Educ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권정생 (1996). 우리들의 하느님. 서울: 녹색평론사.

(Translated in English) Kwon,J.S.(1996). *Our God.* Seoul: Noksaekpyungronsa.

_____ (2002). “강아지똥.”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서울: 창작과 비평사.

(Translated in English) Kwon, J. S. (2002). *Moon Where Dolbae Saw.* Seoul: Changjakgwabipyungsa.

김곰치 (2008). 빛. 서울: 산지니.

(Translated in English) Kim, G. C. (2008). *Shining.* Seoul: Sanjini.

김승혜 · 서종범 · 전해주 · 길희성 · 양은용 · 이정배 · 최일범 (2005).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행: 한국종교와 대화문화. 서울: 바오로딸.

(Translated in English) Kim, S. H., Suh, J. B., Chun, H. J., Gil, H. S., Yang, U. Y., Lee, J. B., Choi, I. B. (2005). *Religious Practice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Korean Religions and Dialogical Culture*. Seoul: Paul’s Daughter.

손원영 (2009).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Translated in English) Sohn, W. Y. (2009). *Korean Culture and Spiritualit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안철환 (2009). 시골똥 서울똥: 순환의 농사 순환하는 삶. 서울: 들녘.

(Translated in English) Ahn, C. H. (2009). *Dung in Rural and City: Cycling Farming and Life.* Seoul: Deulnyuk.

유아사 야스오 (2006). 몸의 우주성: 동서양의 고전을 통해 읽는 몸 이야기. 이정배 · 이한영 역. 서울: 모시는 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Yasso, Y. (2006). *Cosmic Meaning of Body in Eastern and Western Religions.* Trans. by Lee, J. B. & Lee, H.Y. Seoul: Mosinsaram.

이용포 (2011). 무위당 장일순: 생명사상의 큰 스승. 서울: 작은 씨앗.

(Translated in English) Lee, Y. P. (2011). *Muywidanng Jang ilsoon: Great Teacher on Life Thought*. Seoul: Jakeunssyat.

정혜영 (2015). 똥 속의 하늘: 권정생의 똥 이야기로 풀어가는 문학과 신학의 대화. 파주: 도서출판 하늘.

(Translated in English) Jung, H. Y. (2015). *Heaven inside Dung: Conversation with Theology and*

Literature through Kwon Jungsaeng's Dung Story. Paju: Haneul.

정호승 (2020). 당신을 찾아서. 서울: 창비.

(Translated in English) Jung, H. S. (2020). *In Search for You*. Seoul: Changbi.

젠킨스, 조셉 (2004). 똥살리리기 땅살리기. 이재성 옮김. 서울: 녹색평론사.

(Translated in English) Jenkins, J. C. (2004). *The Humanure Handbook: A Guide to Composting Human Manure.* 3rd ed. Joseph Jenkins, Inc.

조정환 (2011). 인지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서울: 갈무리.

(Translated in English) Cho, J. W. (2011). *Cognitive Capitalism.* Seoul: Galmuri.

차정식 (2014). 신약의 뒷골목 풍경. 서울: 예책.

(Translated in English) Cha, J. S. (2014). *Backlane Landscape of the New Testament.* Seoul: Yechek.

홍인표 (2021). 강아지똥으로 그린 하나님의 나라: 권정생의 작품과 삶. 서울: 세움북스.

(Translated in English) Hong, I. P. (2021). *Kingdom of God Drawing by Little Dog's Dung of Kwon Jung Saeng's Works and Life.* Seoul: SeumBooks.

Anderson, B. W. (1966).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Generic.

(Translated in Korean) Anderson, B. W. (1983). 구약성서의 이해II: 계약공동체의 발전. 제석봉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Boff, L. (1975). *Os Sacramentos Vida E A Vida Dos Sacramentos.* Sal terrae.

(Translated in Korean) Boff, L. (1981). 성사란 무엇인가. 정한교 역. 왜관: 분도출판사.

Dunn, J. D. G. (2003). *Jesus Remembered*. Eerdmans.

Dunn, J. D. G. (2005). *The Historical Jesus in Recent Research.* Eisenbrauns.

(Translated in Korean) Dunn, J. D. G. (2010).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 역사적 예수 복음서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차정식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Translated in Korean) Beck, U.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Berry, T. (1991). *Befriending the Earth: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Twenty Third Publications.

(Translated in Korean) Berry, T. (2006).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인간과 자구의 화해를 위한 대화. 김준우 역. 고양: 에코조익.

Boehme, M., Guzzetta, K.E., Bastiaanssen, T. F. S. et al. (2021). Microbiota from Young Mice Counteracts Selective Age-associated Behavioral Deficits. *Nature Aging,* 1, 666-676.

Cho, T. Y. (2001). New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s: Dung, Earth, and Kingdom of God (Luke

13:6-9). *World's Theology, 51,* 71-104.

Choi, M. J. (2019). A Study on the Meaning of Dung in Jeong Ho Seung s Poetr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0*(3), 183-214.

Feachem, R. G., Bradley, D. J., Garelick, H. & Mara, D. D. (1993). *Sanitation and Disease: Health Aspects of Excreta and Wastewater Management*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for The World Bank.

Funk, R. W. (1993). *The Five Gospels: What Did Jesus Really Say? The Search for the Authentic Words of Jesus.* New York: Scribner Book Company.

George, R. (2009). *The Big Necessity: The Unmentionable World of Human Waste and Why It Matters*. Picador.

(Translated in Korean) George, R. (2019). 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화장실과 하수도의 세계로 떠나는 인문탐사 여행. 하인해 역. 서울: CARACAL.

Guzzetta, T. F. S. Bastiaanssen, et al. (August 2021). Microbiota from Young Mice Counteracts Selective Age-Associated Behavioral Deficits. *Nature Aging,* 666-676.

Jensen, P. P. (1992).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Sheffield Academic Press.

(Translated in Korean) Jensen, P. P. (2020). 거룩의 등급: 제사장의 세계관 이해를 위한 열쇠. 김한성 역. 용인: 도서출판 목양.

Jung, K. G. (1989).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Translated in Korean) Jung, K. G. (2007).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조성기역. 서울: 김영사.

Jung, Y. H. (2001). Toilet, True Colony of the Western Culture.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3,* 161-183.

Kang, J. M. (2006). A History of Korean Toilets: Reflection on Dung as Class. *Person and Thought, 2006,* 86-139.

Kim, G. J. (2005). Spirituality of Salvation and Creation. *Theological Forum, 39,* 185-212.

Kim, S. W. (2020). *Toilet and Inappropriate Technology. ScienceWalden Team of Humanity and Society*. UNiST.

Kim, U. J.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nstipa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chool Health Education, 11*(2), 71-87.

Lee, D. B. (2000). Korean Toilet by the Ecological View. *Geological Society, 34,* 131-139.

Lee, H. Y. (2009). *A Study on the Toilets of the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Nickolohoff, J. B. (1996). *Gustavo Gutierrez: Essential Writings.* New York: Orbis Book.

Park, S. O. (2006). Dung Is Energy. *Noksaekpyungron*, 86, 54-58.

Pöhlmann, H. G. (2012). *Abriss der Dogmatic*. 교의학. 이신건 역. 서울: 신앙과지성사.

Sohn, W. Y. (2016). A Study on Christian Curriculum Development for Artistic Spiritual Form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6,* 79-117.

Thiessen, M. (2020).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Baker Academic.

(Translated in Korean) Thiessen, M. (2021).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1세기 유대교 정결의식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사역,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Tillich, P. (1967).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From Its Judaic and Hellenistic Origins to Existentialism*, ed. by Carl E. Braat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Yun, Y. S., Kang, B.H., Kim, M. H., Lee, S. Y. (2011). Modern Applic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on Korean Culture of Eco Toilet, 'Dwit Gan.' *Journal of Agriculture History. 10*(1), 47-72.

한강홍수통제소. (2021.10.11.). 물과 환경. Retrieved October 11, 2021 from http://www.wamis.go.kr/ewi/sub/sub05/sub05_05.aspx.